

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

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을 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일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늦어도 보통 늦은 것이 아닙니다. 해방된 지 61주년 되는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.

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 일을 못하고 덮어 버리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, 얼마나 억울하겠는지. 지난 날 일들을 들춰서 누구를 모욕주고, 누구에게 욕하고, 그러자는 뜻은 아닙니다. 좀 곤란해지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,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바뀌어야 할 가치와 역사에 맞지 않는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. 그것을 대체로 평가를 다 해주고,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,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, 늦었지만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

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정하고, 미흡한 일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. 앞으로 어려운

일이 많이 예상되긴 하지만, 입법을 만들 때 그런 정신으로 힘을 모아 나가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어려운 일 맡아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임명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 자격들을 살펴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. 오래 지난 일인데 젊은 분들이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, 그래도 우리 한국이 민족정기가 살아있어서 그렇다고 생각 들게 됐습니다.

그 동안 과거사 진행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 온 분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. 글로만 연구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실질적인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되니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.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람 있는 일 아닌가요? 꼭 성공해 주길 바랍니다. 어쨌든 참여정부 시기에 이 일을 착수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뜻 깊게 생각되고 영광스럽습니다.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